

# 당신을 기다립니다

노경애·블란디나·가톨릭 디다케 교안 연구원

## 학습목표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고 실천한다.

· 준비물 : 성서, 펜, 등 만들기 재료(우드락, 한지, 칼, 풀), 컵 초

## 시작 기도

예수님 어서 오세요(청소년 성가 145번)

## 바라보기(10분)

중학교 2학년인 민정이는 날아갈 듯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 초대에 응모했는데 당첨되었다고 연락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6시부터 선착순으로 좌석을 배정한다고 하니 좋은 자리를 잡으려면 일찌감치 가서 기다려야 합니다.

민정이는 친구 수지와 3시에 콘서트 장 앞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가보니 벌써 50여 명 정도의 사람들이 돛자리를 떠고 앉아 있었습니다. 민정이도 수지와 서둘러 줄을 섰는데 좌석을 배정 받으려면 3시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도 좋아하는 가수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지루한 줄 모릅니다.

오랫동안 기다린 민정이와 수지는 앞쪽에서 중간 정도의 자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맨 앞자리는 아니지만 가수의 얼굴이 잘 보였기에 민정이는 콘서트 내내 좋아라 소리를 지르며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관람한 콘서트는 민정이의 기억에 오래 남을 것입니다.



-민정리와 같이 기다림 끝에 무엇인가를 얻게 된 경험이 있나요? 있다면 무엇인지 옆 사람과 나누어 봅시다. (2~3분 정도 시간을 준다.)

친구들 잘 지냈어요? 벌써 12월이에요. 12월에 우리가 기다리는 것들은 어떤 것들 일까요? 방학, 기말고사 또 성탄. 그래요, 우리는 지난 11월 28일부터 대림 시기를 지내며 성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 달력으로는 벌써 새해가 시작한 거죠. 대림 시기는 성탄 전의 4주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아기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를 합니다. 오늘은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절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 알아보기 (35분)

-내가 만나고 싶은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2~3명이 서로 나누게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랜 기간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대들에게 몸소 징표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입니다.”라는 이사야 예언서 7장 14절(새번역)의 말씀대로 구원의 징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행적을 전해 듣고는 제자들을 보내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새번역 루가 7, 19)라고 여쭙게 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이십니까?”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주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그에게 이 질문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여라. 눈먼 이들이

보고 절름거리는 이들이 걸어 다니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머슴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새번역 루가 7, 21-23)라고 대답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예언서에 나오는 구원의 시대를 예고하는 용어들로, 곧 예수님께서 ‘구원자’로서 하실 사명을 뜻하는 표징입니다. 이사야 예언서 61장 1절을 다 같이 큰소리로 읽어 봅시다.

하느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가장 가난하고 약한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아보지 못하고,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지 이미 2천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대림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지내는 대림절은 하느님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에게 오신 첫 성탄을 기뻐하며 지내는 축제의 준비 기간이며, 동시에 이 기억을 통해 종말에 올 그리스도의 재림을 마음으로부터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이런 두 가지 이유에서 대림은 진정으로 기쁜 기다림의 시기여야 합니다. 잘 준비하고 기다린 사람만이 축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축제를 밝힐 등불을 만들어 봅시다.

### 작업

#### 등 만들기(대림환 응응)

- ① 우드락을 30×30의 크기로 2개 자른다.
- ② 가로와 세로가 되는 지점에 아래로 칼집을 넣어 꺾는다.
- ③ 양쪽에 예쁜 문양이나 전통 문양을 넣어 칼로 파낸다.
- ④ 안쪽에서 대림초 색깔 순서대로 한지를 바른다.



- ⑤ 4개의 모양을 만들어 대림환으로 꾸민다.
- ⑥ 안쪽에 곱 초를 놓고 대림 1주간마다 초를 밝힌다.

대림 시기 동안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갈망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 사명은 '사랑'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사람, 소외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특별한 애정을 보이셨습니다. 대림 시기에 소홀했던 하느님과의 관계를 다시 맺고(회개), 자선을 베풀 때(나눔) 그 기다림의 끝은 기쁜 만남이 될 것입니다. 구세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외면한 옛날 이스라엘의 잘못을 다시 반복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우리에게 오시는 그분을 알아보고 맞이할 수 있게 잘 준비해야겠습니다.

**살아가기 (10분)**

대림절을 맞이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실천계획표를 만든다.

대림 시기	의미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					
		월	화	수	목	금	토
대림 제1주	기다림						
대림 제2주	회개						
대림 제3주	기쁨						
대림 제4주	나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우리의 사명을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음을 기억하여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과 가난한 이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 세상에 오신 성탄의 신비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이웃에게 전합시다.

**마침 기도**

항상 주님께(때제 성가 31번)

**※관련 교리서**

사랑의 편지(부산교구, 중1, 15과) / 학생교리(대전교구, 상권, 14과)